

종교, 도, 힐링 -주체성 회복을 통해 종교 시민을 지향하며-

박정환*

〈국문요약〉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치유와 힐링의 문제는 가장 최우선의 관심사가 되었다. 동양의 전통은 서양의 전통과 다르게 경전에서 일찍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답을 내놓았다. 특히 불교에서는 윤회를 일으키는 원인을 애증의 반복으로 야기되는 것으로 보아 남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없애고 최고의 주체성을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도의 입장에서 현대인에게 도란 자신의 핵심감정을 깨닫는 것이고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경전에서 말하고 있다. 자신의 주체성을 깨닫는 것은 다름 아닌 불교의 깨달음이고 도의 경지인 것이다. 따라서 현대인에게 힐링이란 타인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하여 자기치유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치유를 이루어낸 주체성을 가진 존재들은 현대사회에서 종교시민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힐링, 윤회, 애증, 도, 주체성, 종교시민

* 박정환(E-mail: apjhwan@hanmail.net)
학위취득대학: 서강대학교 종교학 박사
현직 :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초빙교수

† 이 논문은 2017년 한국종교학 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2A2040811).

논문접수일: 2018년 2월 13일, 논문수정일: 2018년 2월 19일, 게재확정일: 2018년 2월 21일

종교, 도, 힐링-주체성 회복을 통해 종교시민을 지향하며- 77

Religion, Tao, Healing: Towards religious citizens through the restoration of identity

Park, Jung-hwan

<Abstract>

The problem of healing has been a top concern for modern people living a busy life. Unlike the Western tradition, the Oriental tradition responds to these questions early on in the scriptures. Especially in Buddhism, it is said that the cause of reincarnation is caused by the repetition of affection, and it is said that the mind that relies on others is removed and the best subjectivity is realized and escaped from the reincarnation. Also, from the viewpoint of the Tao(道), the scriptures tell that modern people realize their core feelings and restore their subjectivity. It is the enlightenment of Buddhism and the state of the Tao that realizes its subjectivit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healing for modern people is to relinquish one's reliance on others and restore self-identity and achieve self-healing. And the beings of this self-healing subjectivity could function as religious citizens in modern society

[Keyword] *Healing, reincarnation, affection, Tao, subjectivity, religious citizens*

I. 들어가는 말

플라톤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고 이데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자신의 사상의 뼈대를 삼으면서 서양과 동양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지성사를 발전시켰다. 소크라테스까지는 동양과 서양이 비슷한 길을 걸었으나 플라톤 이후로 도를 추구하는 동양과 이론과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서양이 차이를 지니기 시작한 것이다. 서양문명의 특징은 플라톤 이후 모든 것을 개념화·이론화함으로써 주관과 객관, 정신과 물질 또는 신체, 인간과 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을 분리 대상화하는 것이고, 오늘날의 서양문명의 위기는 여기서 오는 필연적인 귀결이다. 한편 소크라테스는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진리를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한다. 그러나 동양의 불교는 육체가 살아있으면서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생해탈이라 하였고 실제로 부처는 무여열반에 이르기 전에 유여열반의 상태로 40여 년간 설법을 하며 살았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일체의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 생각자(生覺者)의 상태였다.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을 완전히 지배한 상태였다.

서양에서 무의식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19세기 프로이트에 와서이다. 물론 프로이트 이전에 시인이나 문학, 철학 등을 통해서 무의식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긴 했지만 과학적인 학문으로 본격적으로 무의식이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은 프로이트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즉 그 연구의 역사가 불과 백여 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동양에서

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인간이 무의식을 정화함으로써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음을 말했다. 불교를 비롯한 동양의 사상 속에는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통찰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동양에서의 지고의 덕은 도를 실현시키는 삶이고 도와 합일되는 삶이다. 유일신과 같이 타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기를 실현시키는 삶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자기의 완전한 실현은 주체성의 자각이었고 깨달음을 통한 자신의 완성을 구도의 이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한때 한국에서 힐링 열풍이 분 적이 있다. 너도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다. 결국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는 반증이고 방법을 알고 싶은 것이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한국의 상황을 나타내듯이 치유되지 않은 행복하지 않는 삶이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비롯됨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외부적인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인간의 행복이 모두 결정된다는 것 또한 옳지 않은 말이다. 예로서 빅터 프랑클(Viktor Frankl, 1905-1997)은 모두가 죽어가는 아우스비츠크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했고 그 자신 지옥과 같은 곳에서 살아남아서 상담을 하며 남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 부처는 온갖 영화를 누렸는데도 출가하였다. 무엇을 반증하는가? 인간의 행복불행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조건과 상황이 아무리 행복한 상황이라고 해도 자신의 감정이 과거에 묶여서 불행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Here and

Now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는가? 지금, 여기가 바로 내가 현존하는 자리이고 지금 목격하는 이 순간, 현재를 제대로 다루는 것이 행복행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동양의 경전은 이미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을 내어 놓은 지 오래다.

본고는 도와 힐링의 관계를 논하면서 불교의 윤회관으로 시작하여 도와 감정의 관계를 살펴본 후 도의 현대적 의미를 모색한 후 도를 실천하는 것은 주체성의 회복이라는 과정을 따를 것이다. 진정한 힐링이란 자기치유로서 스스로의 주체성을 자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힌 후에 스스로의 주체성을 회복한 사람은 현대사회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를 마지막에 제시할 것이다. 즉 주체성을 자각한 사람은 현대사회에서 다른 아닌 종교시민¹⁾이라고 할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종교시민이라 함은 시민이 가져야 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 존재로서 사회조직에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를 말한다. 즉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할 줄 아는 이타적인 존재로서 자신에게 충실할 권리를 자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에게 베푸는 존재이다. 자신에게 충실하다고 하

는 것은 다른 아닌 자신의 주체성을 자각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은 남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줄 알게 된다. 이는 종교시민이다. 따라서 힐링을 통해 자기의 주체성을 회복한 존재는 사회공동체에서 종교시민이 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존재로서 사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II. 본론

1. 불교의 윤회

불교의 모든 교설은 다 연기법으로 회통된다. 불교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연기를 보면 진리를 보는 것이며, 진리를 보면 연기를 보는 것이다”(중아함경 제7권).

“나는 이제 인연법과 연생법을 말하리라. 어떤 것을 인연법이라 하는가. 이른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는 것이니 무명에 의하여 행이 있고 행에 의하여 식이 있는 등이다....연생법도 마찬가지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거나 오시지 않거나 이 법은 항상 머무른다”(잡아함경 제12권).

연기법은 말미암아서 생긴다. 모여서 일어난다는 의미로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가 그 기본구조이며 이는 사성제가 그 정형이다(서종범 1986, 3). 사성제(四聖諦)

1) 종교시민이란 용어는 종교를 매개로 시민이 가져야 할 권리와 행하여할 의무를 동시에 가진 시민을 일컫는 말로 필자가 만든 용어이다. 권리적 측면에서 보면 궁극적 실재를 체험하는 종교적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불교나 도의 용어로 주체성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적 차원에서 보면 이와 같은 자신의 구원을 바탕으로 남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치유, 즉 힐링을 이룬 사람은 종교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사람이고 타인과 더불어 평화롭게 공존하려고 하는 의무를 실행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란 고성제(苦聖諦), 집성제(集聖諦), 멸성제(滅聖諦), 도성제(道聖諦)이다. 고(苦)와 집(集)은 속박세계로서 번뇌의 영역이고 멸(滅)과 도(道)는 해탈세계로서 수도의 영역이다. 진자를 염연기(染緣起)라 하고 후자를 정연기(淨緣起)라 한다. 이리하여 불교의 교리는 연기법으로서 그 기본을 형성하고 있다(서종범 1986, 3). 번뇌가 팔만사천이면 수도 방편도 팔만사천이 되며 번뇌가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이며 수도에 있어서도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이 된다. 그리고 번뇌의 본질이 염(染)이라면 수도의 본질은 정(淨)인 것이다. 염력(染力)에 의해서 중생이 되고, 정력(淨力)에 의해서 부처가 된다. 그런 까닭에 번뇌가 아무리 복잡해도 염력에 지나지 않고 수도과정이 아무리 다양해도 정력에 벗어남이 없다. 이것이 바로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의 원리이며 이리하여 번뇌와 수도는 염연기와 정연기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서종범 1986, 8). 연기는 다시 부처에 의해 12연기로 설명되었고 12연기는 다시 말해 윤회를 설명하는 하나의 틀이다.

불교가 가지고 있는 중심 세계관 중의 하나는 윤회를 믿는다는 것이다. 윤회는 힌두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처도 힌두교 사상의 일부분인 윤회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윤회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업(業)이고 인간은 업에 따라 육도윤회하며 또한 계속 업을 짓는다. 따라서 부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윤회를 하게 마련인데 그렇다면 이 윤회란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육도윤회라는 말 속에서 개나 돼지로 환생하는 것을 윤회라고 알고 있으나 원각경에

는 다음과 같이 명백히 밝히고 있다. 부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일체중생이 끝없는 옛 부터 갖가지 은애와 탐욕이 있음으로 윤회가 있게 되었느니라. 생명체는 다음육에 의하여 목숨을 유지하나니 그러므로 윤회에는 애욕이 근본이 되느니라. 온갖 탐욕이 있는 까닭에 갈애가 있고 그래서 생사가 계속된다. 탐욕은 갈애로 생기고 목숨은 탐욕을 인하여 있는데 목숨사랑은 탐욕에 의하고 애욕은 원인이고 목숨사랑은 결과이다. 탐욕하는 마음에 거슬리거나 순하는 마음을 일으켜 사랑하는 마음에 거슬리면 미워하는 생각을 일으켜 업을 짓고 지옥이나 아귀에 태어나고.. 생사를 벗어나서 윤회를 끊으려면 먼저 탐욕을 끊고 갈애를 제거해야 하느니라(금월운주해, 1974).

인간은 애증을 반복함으로써 윤회에 든다. 원각경에서는 윤회란 애증(愛憎)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애(愛)’는 부처가 설한 12연기인 무명(無名)-행(行)-식(識)-명색(名色)-육처(六處)-촉(觸)-수(受)-애(愛)-취(取)-유(有)-생(生)-노사(老死)의 12단계에서 수(受)가 일어난 후에 갈망이 생기는 과정에 있다. 즉 수(受)는 쾌, 불쾌, 쾌도불쾌도 아닌 상태, 이 세 가지로 감각을 받아들이고 쾌나 불쾌의 조건에 따라 애(愛)나 증(憎)을 일으킨다. 사성제에서도 집성제에서 대상에 집착하는 것은 갈증과 같은 갈애가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갈애는 ‘애(愛)’의 감정을 낳고 인간은 대상에 대

해 집착하는 맹목적인 갈망을 갖게 된다.
종범스님은 번뇌의 본질적 특징을 설명하면서 애증의 고리를 강조하였다.

“무엇이 번뇌인가, 증애가 번뇌이다.” 이와 같이 번뇌의 특징은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번뇌는 바로 미움과 사랑이다. 그러면 미움과 사랑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집착”이다. 중생은 집착으로서 안전을 도모한다. 이런 까닭에 집착은 증애의 본질인 동시에 중생의 공통된 심적 구조이다. 그러므로 번뇌의 특징은 증애이고 증애의 본질은 집착임을 알 수 있다(서종범 1986, 4).

애증을 통해 집착하는 이유는 인간이 갈애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군가나 혹은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애(愛)의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좌절되면 반드시 증(憎)의 감정을 가지게 된다. 탐(貪)하는 것은 애착의 감정이고 진(瞋)은 그에 따른 증(憎)의 감정이며 치(癡)는 자신이 애증(愛憎)의 순환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애정을 느꼈던 대상에게 애정이 좌절되었을 때 미움의 감정을 느끼는 것인데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적개심으로 변형되는 것을 말한다.

보조국사 지눌은 도가 수승하게 익었는지를 판단할 때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첫째, 도를 닦다가 사랑하는 대상이 앞에 있을 때 더 이상의 사랑과 애정의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고 둘째,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 사랑과 미움의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불교는

부처가 되기 직전의 최고 각자인 아라한을 규정할 때도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애정의 감정을 주었다가 그 대상을 상실하였을 때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케네스 첸 1994, 76). 이러한 예들을 보았을 때 불교에서는 애증의 감정으로 인해 동요되는 마음을 번뇌의 가장 근본으로 보고 있고 이것을 윤회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사랑과 미움의 반복 속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해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하다.

이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소승불교에서는 수도의 최고지위에 오른 분들의 명칭을 비구, 아라한, 불(佛)로 일컬었다.

“공덕과 과오에 다 초연히 도를 닦아서 마음에 두려움이 없을 때 그를 비구라 한다”(잡아함경 제 4권).

“생사는 이미 끝났고 해야 할 일은 마쳐서 다시는 윤회를 받지 않아 아라한이 되었다”(잡아함경 제 17권).

“밝은 지혜로 일체를 환히 알아 닦아야 할 것은 이미 다 닦고 끊어야 할 것은 이미 끊었네. 그러므로 이름을 부처라 하네”(잡아함경 제4권).

이렇게 소승불교에서는 번뇌가 다 소멸된 경지, 마음에 탐욕과 공포가 없는 경지, 생사윤회를 계속하지 않는 경지를 가장 이상적인 세계로 하며 그런 지위에 도달한 분들은 제일로 존경하는 것이다(서종범 1984, 8). 비구, 아라한, 부처가 지

니는 공통점은 도의 측면에서 볼 때 최고의 단계에 올랐음을 말하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애증으로 인한 윤회에 들지 않는 분들이다. 애증의 감정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최고의 주체성을 자각한 것이고 타인에게 일어나는 감정으로 인해 자신이 구속당하지 않음을 일컫는다. 애와 증의 감정이 일어나는 과정과 그 극복과정을 불교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수도의 목적도 애증의 감정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것에 두고 있는데 일반인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에릭프롬(Erich Fromm, 1900-1980)은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은 능동적인 행동이며 사랑할 대상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그림을 그리는 능력을 기르듯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랑은 자신이 주체가 되는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대상의 상실여부에 따라서 사랑의 좌절을 깊이 맛보게 하지 않는다(에리히 프롬 2017, 13-19). 다시 말해 애증의 윤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사랑을 하는 것으로 대상으로 인해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수도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현대인이 일상에서의 경험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상처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 힐링의 입장에서 본다면 애증으로부터 해방되는 자기 치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가 주체성을 강조하는 종교라는 점에서 본다면 부처가 ‘천상천하유아독존

(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고 한 것은 자신이 가장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라고 한 것이다. 즉 불교적 입장에서 힐링이란 자신의 주체성을 가장 깊이 자각하고 자신에게만 의지하여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라고 말한 것이다. 물론 불교에도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근기에 따라서 차선책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불교의 핵심은 다른 대상에게 의존하는 마음,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지극한 자기 치유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불교에서의 수도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바로 관(觀)하도록 요구한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며 불교 경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취외상 자심반조(不取外相 自心返照)’

심리학적인 표현을 빌자면 외부 세계에 투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자신의 필립을 돌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즉 자신의 감정이 어떠 하느냐에 따라서 외부대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을 비춰 보는 것이고 자신의 마음을 관하여서 깨달아야지 외부대상에서 어떠한 상도 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선승들이 득오를 한 후에 읊는 계송을 보면 모두가 투사 없는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있는 그대로 사물이 스스로 드러나는 상태를 체험하는 것이 투사의 세계를 직면하는 것이며 부처의 경우는 일체의 투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직지인심(直指人心)의

경지이고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경지인 것이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과 문제는 자신의 마음을 투사하여 다른 대상에게 옮기는 것에서 발생한다. 공자는 안연을 평가할 때 그는 매우 뛰어난데 그 까닭은 분노를 옮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²⁾ 자기가 분노한 대상을 정확하게 보고 다른 대상에게 이것을 투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자기가 애정과 증오의 감정을 느끼는 대상을 타인에게 옮기는 것은 노이로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애정의 결핍이 타인에게 의존적으로 투사되고 이것을 받지 못하였을 때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데 앞서 말한 윤희와 삼독의 경우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로소 시작되며 이것이 타인과의 애증관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불교적 입장에서 보자면 진정한 힐링이란 자신의 주체성과 자존감을 자각하고 투사 없이 대상을 바르게 보고 애증의 감정을 타인에게 옮기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도(道)와 감정

동양사상은 바로 나와 마주 대하고 있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자는데 그 사상의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양사상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역철학의 본질이 그렇고 특히 불교철학이나 도가철학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다. 노장철학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자연상 또는 실상이라고 한다. 박(樸)이라는 말이 그렇고 자연이니 무위니 하는 말이 바로

2) 有顏回者好學，不遷怒。

그 실상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실상이 바로 도(道)요 무(無)라고 내세워지는 진리표현의 언어적 개념이다(송항룡 1986, 15).

도는 자기검토, 자기 이해, 자기 제어와 자기정화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도는 신경증적 갈등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정신건강이다. 한국문화의 핵심은 유불선(儒佛仙)의 도이다. 5000년 단군조선의 건국 이념도 홍익인간(弘益人間)이고 서기 기원전 37년의 고구려 건국이념이 이도여치 영락사해(以道與治 永樂四海), 즉 도로써 다스려 온 세상을 영원히 복되게 한다는 뜻이다(강석헌 2007, 102).

도는 신경증적 서구문화의 치료제라고 할 수 있으며 마음의 정화라고 할 수 있다. 도는 노자의 무위(無爲)를 말하며 불교의 공(空)이고 정신분석에서는 투사가 없는 것이다. 이동식은 도 정신치료를 주창하면서 인간의 마음속의 핵심을 ‘핵심감정(核心感情, Nuclear Feelings)’³⁾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이동식 2009, 133-164).

이동식은 도 정신치료의 정수는 동토에서 떨고 있는 환자에게 봄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하고 이 목적을 성취하기 해서는 치료자 자신의 마음을 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정화가 노자의 무위이고 불교의 공이고 정신분석에서는 투사가 없는 즉 역전이 없는 상태다(강석헌 2007, 103).

3) 핵심감정은 정신과 의사가 환자와 상담하며 발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은 모든 인간에게서 자신을 형성하고 추동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힐링을 자신을 치유하는 입장에서 보아 상담장면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 즉 핵심감정을 검토한다.

핵심감정이란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서는 일거수일투족이 드러나는 것이다. 서양분석이나 정신치료에 있어서 콤플렉스(Jung), 중심갈등, 중심적 문제, 중심역동, 핵심역동, 주동기, 핵심감정군, 또 최근에는 중핵감정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상의 모든 말은 객관적 기술이다. 그러나 핵심감정은 주관적 또는 주체적으로 느끼는 감정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 감정은 공감으로써만 느껴지는 것이고 말로써 전달될 수 없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심전심(以心傳心)이고 말로 할 수 없는 불립문자(不立文字)다(이동식 2009, 29).

핵심감정이 형성되면 모든 인간관계와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을 유지하는 힘으로 작동한다. 불교에서는 주객일치, 즉 완전한 공감에 도달하려면 나와 대상 또는 현실 사이에 놓여있는 세 가지 장막을 걷어 치워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장막은 별업망견(別業妄見)이다. 이것은 경험이 다른 데서 생기는 착가(인지적 왜곡)이다. 두 번째 장막은 동분망견(同分妄見)이다. 이것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착각이다. 마지막은 생사지심(生死之心)이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다. 처음 두 가지 장막을 걷어치우고 불안 없이 죽음을 직면함으로써 즉 육체의 질곡을 벗어남으로써 착각(인지적 왜곡)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 이것이 진여, 주객일치, 착각(투사, 왜곡) 없는 완전한 공감이다(이동식 2009, 32).

도를 찾아가는 내용을 그림으로 형상화한 십우도에 의하면 심우(尋牛), 견적(見跡), 견우(見牛)는 인간의 핵심감정을 이해하는 것에 해당하고 득우(得牛)는 이러한 감정을 억압을 하지 않고 느끼고 자

각하는 것에 해당한다. 한 번 통찰을 해서 안 놓치는 것이다. 목우(牧牛)는 감정을(소)을 놓치지 않고 부리고 갈등을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감정이 나타나서 자라고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이동식 2009, 35). 기우귀가(騎牛歸家)는 문제와 현실을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것이다. 자신의 핵심감정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지나면 십우도의 그림에서 검은소가 흰소로 변화되는 지점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정심이 되어 사랑과 미움이 없어지게 된다. 인간의 마음은 이 핵심감정을 이해하고 컨트롤 하게 되면 도의경지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송나라의 대혜선사는 『서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애응지물 기제각(碍膺之物 既除覺)’(대혜 2012, 263, 315)

애응지물이 없다면 곧 각(覺)이라고 하였는데 애응지물이 다름 아닌 핵심감정이고 각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감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도의 경지에서 보면 자신의 핵심감정을 보고 애응지물을 없애서 도와의 혼연일체를 경험하는 것을 도를 체득화하는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선에서는 진면목에 도달하려면 360도를 돌아야 한다. 성철스님의 법어 중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법어가 있는데 자신의 핵심감정을 보기 시작하면서 소가 검은 때는 180도의 경계가 되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가 된다. 환자에게 무엇이든지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보고하라고 하면 환자는 과거에 직면하기가 어려워 억압해 두었던 부정적인 감정을 보고한다.

이 단계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부분적으로 억압되어 있고 동시에 긍정적인 감정도 억압되어 있다. 그러나 환자가 과거에 억압할 수밖에 없었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 놓게 되면 어머니를 죽이고 싶은 정도까지의 적개심을 자각하게 된다. 180도 경계에서는 어머니를 죽이고 싶다고 한다. 이것이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닌' 경계다. 가치의 완전한 전도다. 사랑이 미움으로 둔갑한다. 어머니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고 미움의 이유를 이해하면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다. 위장 없는 사랑과 미움을 받아들이고 이유를 이해하면 사랑도 미움도 없다. 이것이 부정과 긍정의 감정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고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인 경계다. 360도 전환이고 위장이나 투사가 없는 현실이다(이동식 2009, 33).

산은 산이 아닌 180도의 경지에서는 대상에 대한 부정의 감정이 자리하고 이 경지를 넘어 360도의 경지가 되면 긍정의 감정이 자리하는 것이다. 이처럼 도는 결국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감정의 정리, 마음의 정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일거수일투족을 결정짓는 핵심감정이 곧 애응지물임을 자각하고 핵심감정을 깨닫고 의식화 시킴으로써 결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 도의 현대적 의미.

도는 주객일치요 우주요 원리요 주체성이고 무위(無爲)고 부처고 성인(聖人)이고 지인(至人)이고 진인(眞人)이며 무기(無己), 무아(無我), 무념(無念), 인격의 성숙이요 정심(淨心)이고 정심(正心)이라고

무한히 말할 수 있다. 말로써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를 깨친 사람이 깨치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깨친 소리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이동식 1986, 35). 도덕경에 도가도비상도 명가명비상명(道可道非常道 名可名非常名)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왓츠는 동양의 유교, 불교, 노장, 힌두교 등을 서양적인 개념으로는 종교도 철학도 아니고 정신치료라고 말했다(이동식 1992, 219). 왓츠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가 불교와 도교, 베단타 철학이나 요가에서 가르치는 인생의 길을 깊이 살펴보면 이들에서는 서양에서 이해하는 철학이나 종교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우리는 정신치료와 거의 유사한 어떤 것을 발견한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정신치료는 과학의 한 형태로 생각하고 그 태도에 있어서 다소 실제적이고 유물론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불교나 도교는 현세를 멀리 떠난 영적 세계에 관여하는 심히 비전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엘렌 왓츠 2004, 14-16).

그러면서 왓츠는 서양의 심리학은 정신 또는 마음을 임상적으로 연구하는데 몰두해 온 반면에 동양 문화에서는 서양에서처럼 마음과 물질, 영혼과 신체 등으로 범주화하지 않았다, 라고 설명한다(엘렌 왓츠 2004, 16).

동양의 수도의 목표는 마음이 맑은 거울과 같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주도록 맑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양의 정신분석에서는 부정적인 힘의

분석 해결을 위주로 해 왔으나 불교의 선(禪) 특히 간화선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힘을 총동원해서 부정적인 힘인 애응지물(碍膈之物)을 녹이려고 하였다(이동식 1986, 35-36). 도의 체득화는 서양의 언어로 표현하면 무의식의 정화라고 할 수 있다. 무의식이 투사되는 과정은 업식(業識)이 전식(轉識)이 되고 현식(現識)이 되며 그 다음이 지식(智識)이고 다음이 상속식(相續識)이다.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활동이 시작되어(업식), 주관이 형성되고(전식), 능히 객관세계를 나타내며(현식), 나타난 대상을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삼으며(지식), 내 것으로 남은 대상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것(상속식)이 있으니 이것을 의(意, manas)라고 한다(이기영 2002, 219) 여기서 끝에 두 개는 의식이고 투사의 산물이다. 이것은 철학이고 지식이고 그의 파생물이다. 모든 것은 무의식의 투사고 망상인 것이다. 따라서 수도의 최종목적은 착각, 즉 갈등을 일으키는 투사를 없애는 것이다(이동식 2009, 36).

도가 무르익으면 대상의 사물이 그대로 눈앞에 현전하게 된다. 판단하면 투사가 되니까 판단하지 말고 대상자체로 즉 사물과 나,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물과 내가 만나는 것을 도하고 통한다고 할 수 있다(이동식 2009, 138). 인간의 실존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양의 정신분석자, 실존철학자들, 정신분석자들이 병리적이고 신경증적인 불안은 없앨 수 있지만 정상적이고 실존적인 존재적인 불안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없앨 수 없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선에서는 생사지심(生死之心)을 타파함으로써 정상

적인 실존적 불안마저 없애자는 것이다. 실존철학은 죽음에 대한 불안의 자각이고 도의 입문이고 보스(Medard Boss)의 말을 빌리면 최선의 서양의 정신분석수련도 정심(淨心)의 입장으로 보면 입문에 지나지 않는다(이동식, 1986, 36).

즉 도로 대변되는 동양의 도의 문화는 서양의 인격신과 비교해 볼 때 더 높은 경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인은 누구나 실존적으로 불안을 느끼지만 서양의 전통은 이것을 실낙원의 경험, 즉 신으로부터 추방당한 경험으로 인해 신과의 분리가 일어났고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실존적인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다시 신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동시에 니체가 신의 죽음을 선포한 이후에 더욱 공허해진 서양은 동양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양인은 진정한 자아를 찾는 노력을 하며 주체성을 기르고 도와 합일하려고 한다. 도는 존재(存在)요 주체성이고 자각이며 자기지배요, 내적지배(內的支配)인 동시에 최고의 성숙이요, 자유이고 또한 자율이며 건설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이동식 1986, 37) 따라서 현대인이 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본래의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이것을 다시 말해 궁극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힐링의 일환인 것이다.

즉 도로 닦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觀)하는 것으로 항상 자기의 마음을 보는 것, 이것이 수도이다. 24시간 내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행주

좌와(行住坐臥)의 자기 마음을 철저히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상각자(常覺者)란 항상 자기 마음을 깨닫고 있는 자를 말한다. 현대인에게는 예 성현들이 논했던 도를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치유의 측면에서 실천하고 닦을 필요가 있다. 도를 현대인이 닦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은 힐링의 한 방법일 수 있다. 결국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자기치유, 즉 힐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4. 주체성의 회복 - 종교 시민을 지향하며

그러면 자기 치유인 도의 실현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문제다. 나는 도의 실현을 통한 진정한 자기의 실현이 다른 아닌 힐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힐링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룩할 수 있는가? 진정한 자기의 실현은 주체성의 자각이고 자신의 실존에 직면하는 것이다.

주체성이란 무엇인가? 주체성이란 한마디로 해서 내가 나의 주인공이라는 자각을 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 극치는 석가모니가 외쳤다는 “천상천하유아족존(天上天下唯我獨尊)”의 경지다.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우주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자각이다. 나는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주체성이다. 일체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독립을 뜻하는 것이고 동시에 자유를 뜻한다. 정심(淨心), 정심(正心), 각(覺)이고 부처, 성인(聖人), 진인(眞人)이 최고의 주체성(主體性)이다(이동식 1994, 49). 주체성이란 주인의식이요, 독립이요, 해방이요, 선택이요,

부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성의 형성과정은 의존에서 독립으로, 노예에서 주인으로, 예속에서 해방으로 강요함이 아니고 자유로운 선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주체성의 상실은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당시의 나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에 부딪치게 되어 자기성장을 저해당할 때 이루어진다. 건강한 인격은 주체성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길러진 사람이요, 정신이 불건강한 정신증이나 정신병적 인격은 주체성의 상실자라고 할 수 있다. 인격의 성숙이나 완성이 주체성의 확립이요, 최고의 경지는 도(道)를 깨친 각(覺)의 경지다(이동식 1994, 49).

주체성의 침해나 상실은 주체성의 순조로운 형성에 필요한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할 때 없거나, 없어야 할 때 강압되거나 간섭과 방해가 심할 때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일어난다. 소화(消化)되지 못한 기억들, 만족시키지 못한 욕망들, 소화(解消)되지 못한 공포,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들, 유화할 수 없는 양심의 요구들, 사용되지 못한 능력들, 불완전한 동일성, 억압된 영적 요구들, 이러한 것들이 앞을 가로막고 전진을 방해하고 주체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이동식 1994, 49).

이와 같이 주체성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자신의 주체성 자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은 자기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가치료이며 다시 말해 힐링이라고 할 수 있다. 힐링이 이루어져야 할 대상이 병든 사람에서 건강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주체성이 심히 약화된 신경증

이나 정신병의 경우를 보면 신경증의 증상이나 정신병의 증상은 외부로부터 침해해 들어오는 주체성을 말살하려는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체성을 바로 잡으려나, 즉 자아의 힘이 외부의 힘에 억압되어 나의 절실하고 진정한 감정이 무의식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렸을 때에 나타난다. 진정한 자기가 자라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힐링은 주체성의 회복과 같은 측면에서 다룰 수 있으며 회복은 자각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선(禪)에서 말하는 애응지물(碍膈之物)을 제거(除去)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애응지물(碍膈之物)이 생기기 전의 나의 참다운 모습, 즉 본래면목(本來面目) 또는 진면목(眞面目)을 되찾음으로써 이루어진다.(이동식 1994, 50)

이와 같이 주체성을 자각한 사람은 종교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낸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현대사회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내야 하는지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 자신의 구원을 힐링이라고 한다면 결국 힐링은 자신의 실체를 자각하는 것이고 이러한 임무를 완수해낸 사람은 현대사회에서 세계시민이요 종교시민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의 현대적 의미는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부리며 현대사회에서 주체성을 가진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의식, 시민정신, 주체적인 세계시민은 다름 아닌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에 도를 체득하여 주체성을 자각한 사람이 모인 사회는 세계시민정신, 종교시민정신이 발현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고 그 구성원은 세계시민이며 종교시민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보고 주체성을 회복하여 세계시민, 종교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힐링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Ⅲ. 나가는 말

지금까지 불교와 도의 입장을 중심으로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 자기치유, 힐링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다루었다. 한국에서는 현재 기독교와 불교가 양대 산맥을 이루는 종교로 되어 있지만 한국인이 본래 도를 지향하는 민족이었음은 최치원의 난랑비서문을 보면 풍류라고 하여 본래 한국인의 정서가 유불선을 합한 도의 문화라고 설명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깊고 오묘한 도가 있다. 이를 풍류라 한다. 이 교를 설치한 근원은 선사에 상세히 실려 있거니와 실로 이는 삼교를 포함한 것이요, 모든 민중과 접하여서는 이를 교화하였다”(김부식 1997, 93)⁴⁾

이러한 한국인의 정서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도의 정신은 고대로부터 한국인에게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길은 개인이나 민족의 차원에서 주체적인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개개인은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하여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됨으로써 타인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으

4)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教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教. 接化群生.

며 힐링이란 다름아닌 주체성의 회복, 온전한 자기가 되는 길이라고 하겠다. 인간의 행복은 감정의 처리에 달려있고 결국 감정의 처리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길로만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유일신 전통에서는 신에게 의지하는 타력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 은총을 말한다.

그러나 한국인에게는 외래 종교인 기독교를 넘어서서 마음의 심층에 도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한국인에게 힐링은 도의 실현, 도의 체득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인에게서 자신의 감정을 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고 자신의 마음을 관하여 자신의 감정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는 투사 없는 삶이 진정한 자신의 삶을 알고 끊임없는 정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완성하는 길이요, 힐링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행복한 삶에 이르는 길을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 끊임없는 자기관찰과 정진은 비단 수도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자신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양의 전통이다. 자기를 자신이 구축해나가는 것, 자신을 자기가 알아나가는 과정, 인간은 누구나 구도의 도정에 있고 그 도정위에서 정진하는 것이 곧 힐링이다. 남에게 거저 얻으려는 마음을 없애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서양에서도 프로이트에서 시작하여 ‘무의식의 의식화’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융은 ‘개성화과정’이라는 말로 자기 (selbst)를 찾아가는 길을 제시했으며 그 자신도 그런 삶을 지향하며 살았고 인간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다.

동양의 전통은 일찍부터 도의 체득

화와 도의 실현을 강조하였으며 이제는 도라는 말을 멀게 느낄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행복한 삶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해야 할 때다. 힐링은 정진과 노력 끝에 오는 하나의 열매로 인식해야 참다운 휴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할 것은 이렇게 힐링을 얻은 주체성을 회복한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현대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서두에 나는 종교시민이란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저마다 주체성을 회복한 사람은 종교적인 관점을 적용하여 보았을 때 자신에게 국한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과 더불어 살고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이타적인 존재로 변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체성을 회복하여 자가 치유, 힐링을 한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돌 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즉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권리,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권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종교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종교를 통한 힐링을 추구하는 현대인은 자신의 주체성회복을 통한 스스로의 구원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이타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며 이런 과정이 개개인의 회복을 통한 사회적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본고는 종교와 힐링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동양의 전통과 도의 입장에서 주체성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힐링을 제시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힐링이 개인의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치유

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사회의 변화는 구성원의 변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으며 결국 종교시민이라는 개념은 개개인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시민으로서의 권리, 자기의 구원으로서의 권리와 타인에 대한 배려의 의무를 동시에 지니는 존재가 됨으로써 결국은 자기 치유를 넘어서는 사회의 치유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종교적 입장에서 힐링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불교의 이해』. 서울: 분도출판사.

- 강석현, “도정신치료와 아시아에 있어서 서양정신치료의섭취”, *The Assimilation of Western Psychotherapy in Asia* 98-106
- 김부식 저, 고전 연구실 옮김, 1997. 『삼국사기』 상. 서울: 신서원.
- 대해보각선사, 『서장』. 서울: 운주사, 2012, p. 263, 315.
- 서중범. 1986. “불교의 수도”. 『도의 현대적 의의』 3-8
- 송항룡. 1986. “도가의 수도”. 『도의 현대적 의의』 15-18
- 에리히프롬, 황문수 옮김, 2017. 『사랑의 기술』. 서울: 문예출판사.
- 이기영. 『원효사상, 세계관』. 서울: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 이동식. 1986. “도의 현대적 의의”. 『도의 현대적 의의』 32-37.
- _____. 1992. 『한국인의 주체성과 도』. 서울: 일지사.
- _____. 1994. “한국인의 주체성과 한국문화”. 『정신치료』 8(1):43-53.
- _____. 2009. 『도 정신치료 입문』. 서울: 한강수.
- 금월운주해. 1974. 『원각경주해』. 서울: 동구역경원.
- 앨런왓츠. 강석현 옮김. 2004. 『동양과 서양의 정신치료』. 서울: 하나의학사.
- 마크 엡스타인. 2008. 전현수·김성철 옮김. 『붓다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존 웰우드 편저. 박희준 옮김. 1978. 『동양의 명상과 서양의 심리학』. 서울: 범양사 출판부.
- 케네스 첸. 길희성·윤영해 옮김. 1994.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Kang Suk-heon, "Intake of Western Psychotherapy in Asian Neuropsychiatric Treatment", *The Assimilation of Western Psychotherapy in Asia* 98-106.
- Kim Boo-sik, the classical laboratory(Trans). 1997. *Samguksagi*. Seoul: Shinseowon.
- Dae-hye, 2012. *Seo Jang*. Seoul: Unjusa.
- Seo Jong-bum. 1986. "The capital of Buddhism". *Modern significance of Tao* 3-8.
- Song Hong-ryong. 1986. "The capital of Doga". *Modern significance of Tao* 15-18.
- Erich Fromm, Hwang Munsoo(trans) . 2017. *Technology of Love*. Seoul: Munhwa Publishing.
- Lee Ki-young. *Wonhyo Thought-Worldview* Seoul: Korea Buddhist Institute.
- Lee Dong-sik. 1986. "Modern significance of Tao". *Modern significance of Tao*. Korean Psychotherapeutic Society. 32-37.
- _____. 1992. *The Subjectivity of Korean People and Tao*. Seoul: iljisa.
- _____. 1994. "The Subjectivity of Korean and Korean Culture". *Psychotherapy* 8(1) 43-53.
- _____. 2009. *Introduction to Tao Psychotherapy*. Seoul: Hangangsu.
- Geunwal. 1974. *Commentary on Onegakgeyong*. Dongguk Tongyeongwon.
- Alan Watts. Gang Suk-heon(trans). 2004. *Oriental and Western psychotherapy*. Seoul: Hana Medical History.
- Mark Epstein. 2008. *Psychology of the Buddha*. Seoul: Hakjisa..
- John Wellwood(edited). Park Hee Jun(trans). 1978. *Oriental Meditation and Western Psychology*. Seoul: Pamyang Publishing.
- Kenneth Chen. Geel Hee-sung and Yoon Young-hae.(trans) 1994. *Understanding Buddhism*. Seoul: Bundo Publisher.